

02. 율곡의 심성론

1) 심성론이란

‘심성(心性)’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면 1) 인간의 타고난 마음씨, 2)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체(本體), 3) 성정(性情) 혹은 성격(性格)을 뜻한다. 이러한 뜻은 ‘심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합해서 풀이할 때의 의미이다.

심(心)과 성(性)이라는 두 글자로 나누어 풀이해 보면, 심(心)은 ‘마음’이며 성(性)은 본성이거나 감정을 뜻하나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성(性)의 의미는 다르므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다음 사전, <https://dic.daum.net/>)

먼저 한국어에서 ‘성(性)’은 1)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특징, 2) 남녀의 육체적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것, 3) 생식에 있어 역할을 배분하며 암컷과 수컷을 구분 짓는 여러 특성 및 기능의 총체 등의 뜻이 있다.

이러한 뜻 외에 ‘성(性)’은 한국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성격(性格), 성질(性質), 본성(本性) 등의 단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어에서 ‘성(性)’은 ‘싱(xìng)’이라고 발음하며 ‘성격’·‘본성’·‘기질’·‘성질’·‘성분’, 혹은 ‘특성’을 뜻하고 동사로 ‘화내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바이두(<https://www.baidu.com/>)에서 중국어 사전을 보면 ‘싱(xìng)’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 (1) 사람의 본성, 즉 사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심리 소질
- (2) 성정(性情), 성격 혹은 성깔.
- (3) 사물의 성질이나 특징
- (4) 성별
- (5) 생식이나 성욕과 관련된 것

참고로 일본어에서 ‘성(性)’은 ‘세이(せい)’라고 발음하며 마음·천성(타고난 성질)·사물의 성질·남녀·자웅의 구별 혹은 섹스를 의미한다.

심과 성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차이가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심성론은 중국철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심과 성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아야 한다. 심성론의 ‘성(性)’은 한국어의 ‘본성’에 가장 가깝다. 따라서 ‘심성론’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마음과 본성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2) 성(性)은 하늘이 부여한 것

『중용』에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 즉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있다. 주자는 『중용혹문』에서 “하늘이 사람에게 명(命) 한 것이 바로 사람의 성이 되는 것이다. 대개 하늘이 만물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 명이다.(天之所以命乎人者, 是則人之所以為性也. 蓋天之所以賦與萬物, 而不能自己者, 命也.)”라고 하였는데 하늘이 명(命) 했다는 말은 하늘이 부여했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하늘이 부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용』의 ‘성(性)’은 앞서 소개한 중국어 사전의 ‘성(性)’과는 다른 말일까? 그렇지 않다. ‘성’을 본성이나 천성으로 바꾸어도 중용이 말한 의미와 다르지 않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 본성이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 천성이다.” 모두 의미가 통한다. 본성이나 천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하늘이 준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중용』의 ‘성(性)’의 개념은 하늘이 부여했다는 뜻이 추가되었다.

그러면 하늘이 내려 주었다는 본성은 사람마다 모두 같은 것일까? 아니면 서로 다 다른 것일까? “그 사람은 천성이 착하다.” “상황이 어려우니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말들을 보면 사람의 본성이나 천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늘에서 본성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하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본성이나 천성을 내려주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을 논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것이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났다.”라는 말에서 본성은 나쁜 것을 전제로 한다. 하늘에서 받은 완전체가 악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송의 장재(張載)는 ‘태극은 기’라고 주장하고 만물 역시 기로 만들어졌으며 기가 모이고 흩어짐에 의해서 이 세계가 구성된다고 하였다. 흩어진 상태는 태허이며, 모아진 상태는 만물이다. 태허는 투명하고 유통성이 높은 기 본래의 존재방식이 그대로 나타나며, 만물은 기가 열등화된 상태라고 하였다. 태허의 기와 만물의 기를 차별화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태허의 기에는 도덕을 중심으로 삼는 본성(性)이 갖추어져 있으나 열등화된 기인 만물에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본래 투명한 본성을 ‘천지의 성(性)’, 열등화된 기의 현실적인 양상을 ‘기질의 성’이라고 불렀다. 인간은 수양을 통해서 기질을 변화시켜 본래의 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국사상문화사전』상, 65쪽)

이렇듯 장재는 성을 두 개로 구분하여 도덕적인 본성을 천지의 성, 그렇지 못한 성을 기질의 성으로 나누었다. 악할 수도 있는 인간의 본성이나 천성은 천지의 성이 아니라, 기질의 성이 되는 것이다.

한편 남송의 주자는 장재의 주장과 정이의 사상을 계승하여 ‘성즉리(性卽理, 본성은 리다)’ 사상을 정립했는데 그 역시 나중에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으로 나누어 인간의 본성 혹은 천성을 설명했다.

주자는 만인은 태생적으로 순수한 리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를 ‘본연의 성’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간의 심신을 구성하는 기와 질에는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항상 착한 것은 아니게 된다. 즉 리의 발현 정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현명함과 어리석음, 선과 악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를 ‘기질의 성’이라고 한다. 주자는 ‘리의 발현이 충분치 못함의 차이’가 기질의 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주자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 태어날 때 완전한 본체가 아님이 없는 것이 성이다. (즉 성은 완전한 본체이다. - 역자 주. 이하 같음) 그러므로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말하면 원亨利貞(元亨利貞, 천도의 네 가지 덕)이라고 하는데, 사계절이나 오행, 그리고 만물의 변화가 이로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없다. 성(性)으로써 말하면 곧 인의예지라고 하는데, 사단이나 오전(五典, 오륜 즉 인간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그리고 만물과 만사의 리(理)가 이 사이를 통하지 않음이 없다.(吾之得乎是命, 以生而莫非全體者性也. 故以命言之, 則曰元亨利貞, 而四時五行, 庶類萬化, 莫不由是而出. 以性言之, 則曰仁義禮智, 而四端五典萬物萬事之理, 無不統於其間)”

하늘에서 받은 성은 완전한 본체이며, ‘원亨利貞’의 네 가지 덕이기도 하다. 또 ‘인의예지’이기도 하며 사단과 오륜 그리고 만물과 만사(萬事, 만 가지 일)의 리이기도 하다. 주자는 이렇게 성(性)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하여 인간의 본성(性)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그것이 하늘에서 받은 완전체(全體者)라고 보았다.

주자는 같은 문장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대개 하늘과 사람에게서 성과 명의 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는 일찍이 하나 아닌 적이 없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물에 있어서 기질(氣)과 품성(稟)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리는 지금까지 항상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성이 순수하고 지극히 선하기 때문에 순자·양옹·한비자가 말한 것과는 다르다.(蓋在天在人, 雖有性命之分, 而其理則未嘗不一, 在人在物雖有氣稟之異, 而其理則未嘗不同. 此吾之性所以純粹至善, 而非若荀揚韓子之所云也)”(『중용후문』)

‘하늘과 사람에게서 성과 명의 구분이 있다.(蓋在天在人, 雖有性命之分)’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늘에서 부여한 것이 성이라는 말을 주자는 하늘의 명(命)과 인간의 성(性)으로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해석하여 각각은 명과 성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영역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은 리(理)라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의 영역과 사물의 영역이 기질과 품성으로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리는 항상 같았다고 주장한다. 리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사람에게서도 천지 만물에게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리는 인간에게서는 성(性)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은 순수하고 지극히 선한 것(純粹至善)으로 성을 악하다고 주장한 순자나 한비자, 그리고 성을 선악의 혼재물로 본 양옹이 말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주자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지극히 순수하고 선한 것이며 우주 만물의 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주자학의 성즉리(性卽理, 성은 즉 리이다.)라는 명제가 창출된 것이다. 중국어가 가진 성(性)의 개념은 이렇게 주자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다. 율곡의 심성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리 위에 제창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내면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전제, 그리고 우주 만물과 인간은 하나의 지고지순한 원리, 즉 리(理)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리 탐구가 아닌 인격 수양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사단과 칠정

‘사단(四端)’이란 인간 감정의 네 가지 단서, 즉 ‘실마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네 가지란 측은(惻隱) 해하는 마음, 수오(羞惡, 부끄러움) 하는 마음, 사양(辭讓) 하는 마음, 그리고 시비(是非) 하는 마음이다. 측은해하는 마음은 인(仁, 어짐)의 시작이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義)의 시작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禮)의 시작이며, 시비하는 마음은 지(智)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맹자』가 주장했는데 그는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칠정(七情)’이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7가지 종류로 나누어 말한 것으로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이다. 이 칠정은 반드시 여기에 제시된 일곱 가지 정만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이렇게 일곱 가지 정으로 지칭했을 뿐이다. 이것은 『예기』, 「예운편」에 나오는 말이다.

이러한 사단칠정에 대해서 주자는 깊이 있게 논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는 성(性)과 정(情)을 둘로 나누고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했다. 즉 인의예지의 네 가지 덕은 성이며, 사단과 칠정은 정이라고 했다.(『주자집주』) 이때 인의예지의 성은 미발(未發) 상태이며, 사단과 칠정의 정은 기발(既發) 상태이다. 다만 그는 기발 상태인 정 가운데 사단을 리의 발(理之發), 칠정을 기의 발(氣之發)이라고 하고 사단은 선한 것으로, 칠정은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자어류』권 53) 주자가 이렇게 세심하게 사단과 칠정을 구분한 것은 성의 본래 상태는 선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인간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이종태, 469 쪽.)

조선의 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이 문제는 한국 철학 사상 최고의 논쟁거리로 부각하여 조선시대 200여 년에 걸쳐 세밀하고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은 사단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퇴계는 어느 날 정지운(鄭之雲, 1509년~1561년, 호는 추만秋巒)이 지은 「천명도」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사단은 리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는 말이 있었다. 퇴계는 이를 고쳐 ‘사단은 리의 발이며(四端理之發), 칠정은 기의 발(七情氣之發)’이라고 하였다. 즉 사단은 리가 발동한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동한 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감정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이는 주자가 『주자어류』에서 ‘사단은 리의 발이며 칠정은 기의 발’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고봉 기대승(奇大升, 1527년~1572년)은 이에 반기를 들어 두 사람 간에 8년에 걸쳐 편지가 오가며 철학적인 논변이 진행되었다. 고봉의 생각으로는 사단과 칠정은 똑같이 모두 정에 속하는 것이고, 칠정 밖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단과 칠

정을 나누어 사단은 리에 칠정을 기에 소속시키면 리와 기는 독립된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므로 사단 속에는 기가 없고, 칠정 속에는 리가 없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 버린다. 이런 상태는 성리학에서 용납되지 않는 것이며, 리가 발한다는 개념도 성리학의 이기설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인데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퇴계의 답변은 우선 리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지만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 구별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정에 사단과 칠정의 구분이 있는 것은 성에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이 구분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성을 리와 기로 나누었다면 정도 그 내력이나 주가 되는 것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퇴계는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로 나누어 도심을 인심의 위에 두고 인심을 절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해석을 제안한 것이다. 퇴계는 이런 입장에서 거경(居敬)을 중시하고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멀리하는(存天理去人欲) 방법으로 삼았다.

나중에 퇴계는 앞에서 말한 문구에 관해 “사단은 리가 발하여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거기에 탄 것이다(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乘之)”라고 정리를 하였다. (조장연, 198-199쪽) 하지만 퇴계가 처음에 제시한 ‘사단은 리가 발하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는 주장은 크게 변함이 없었다.

율곡은 이러한 퇴계를 비판하고 기대승의 주장에 동의하여 자신만의 사단칠정론을 전개하였다. 율곡은 퇴계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였다.

“마음(心)과 본성(性)을 두 가지의 작용(用)이라 생각하고 사단과 칠정을 두 가지의 감정(情)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리와 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까닭이다. 대체로 감정이 발동할 때 발동하는 것은 기이고 발동하는 까닭은 리이다.(夫以心性爲二用, 四端七情爲二情者, 皆於理氣有所未透故也。凡情之發也, 發之者氣也, 所以發者理也。)”(『성학집요』, 「수기」)

마음과 본성 혹은 사단과 칠정을 각기 다른 별개의 두 가지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 발동할 때는 기와 리가 동시에 작용(역할)을 하는 것이지, 퇴계가 말하듯이 어떤 것은 기가 어떤 것을 기가 발동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어서 율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가 아니면 발동할 수 없고 리가 아니면 발동할 까닭이 없으니, 리와 기는 섞이어 원래부터 서로 떠나지 못한다. 만약에 떠나거나 합치는 것이 있으면 움직이거나 고요함도 끝이 있고, 음과 양도 처음이 있는 것이다.(非氣則不能, 發非理則無所發, 理氣混融, 元不相離. 若有離合, 則動靜有端, 陰陽有始矣。)”(『성학집요』, 「수기」)

기와 리가 서로 떠나지 못한다는 뜻은 기와 리는 서로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은 리가 발동하고 칠정은 기가 발동한다면 리와 기가 서로 독립해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한다.

“리란 태극이고 기란 음양인데 이제 태극과 음양이 서로 (별도로 따로 따로-역자 주) 움직인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태극과 음양이 서로 (별개로) 움직일 수 없으면 리와 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발동한다는 것이 어찌 오류가 아니겠는가?(理者太極也, 氣者陰陽也. 今曰, 太極與陰陽互動, 則不成說話. 太極、陰陽不能互動, 則謂理氣互發者, 豈不謬哉.)”(『성학집요』, 「수기」)

율곡은 칠정 속에 사단이 포함된다고 보고, 칠정 중에서 착한 측면만을 가려 말하는 것에 사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단과 칠정을 리와 기의 발동 결과로 보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는 기는 발동하지만 리는 그렇지 못하고 발동하는 기에 올라탈 뿐이라고 주장한 ‘기발이승(氣發理乘)’의 이기론을 사단과 칠정에 적용시켜, 사단과 칠정 모두가 기발이승의 결과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율곡은 기는 발동하지만 리는 발동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기가 발동하여 칠정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칠정 안에 착한 부분이 사단이라고 보았다. 사단은 칠정 가운데 포함되며 리만 가리켜 말할 때는 사단이라고 하고 리와 기를 겸해서 말할 때는 감정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단과 칠정의 문제는 중국 성리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한국 성리학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유학자들이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참고로 북송의 철학자 장재(張載)는 ‘마음이 본성과 감정을 거느린다.(心統性情)’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통(統)은 거느린다, 통섭한다, 총괄한다는 뜻이다. 그는 본성(性)을 총괄체(統體)로 생각하고 그것을 천지의 성(天地之性)과 기질의 성(氣質之性)으로 구분했다. 천지의 성은 덕목으로 인·의·예·지가 있으며, 기질의 성은 희·노·애·락·애·오·욕의 감정이 있다. 그런데 마음은 본성과 감정을 통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에 의해 칠정을 절도에 맞는 본연의 상태, 즉 천지의 성이 드러나는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장재의 주장을 수용한 주자는 ‘본성은 즉 리’(性卽理)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본성은 마음의 본체가 되고,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 되기 때문에 마음은 체용으로서 본성과 감정을 포괄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성즉리’는 마음 활동의 근본 법칙이 되는 것이다.

4) 인심과 도심

율곡은 사람의 마음을 2종류로 나누었다.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그것이다. ‘인심’은 인간적인 마음이며, ‘도심’은 도덕적인 마음을 말한다. 전자는 육체를 위해서 발동하는 감정이며, 후자는 도의를 위해서 발동하는 감정이다.

그는 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감정이 발동하는 데는 도의(道義)를 위해서 발동하는 것이 있다. 가령 어버이에게 효도하고자 하고 임금께 충성하고자 하는 것과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져들어 가려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며 울지 않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종묘를 지나갈 때 공경하는 종류와 같

은 것이니, 이것을 도심(道心)이라 이른다.” (『율곡전서』, 「인심도심도설」)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임금에게는 충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해하는 마음,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보면 부끄러워하는 마음 등이 도심이다. 즉 도덕적인 감정을 말한다. 이와 달리 인심은 인간적인 감정 혹은 인욕에 의한 감정을 말한다.

율곡은 인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육체를 위해서 발동하는 것이 있다. 가령 굶주리면 먹으려 하고 추우면 입으려 하고 피로하면 쉬려고 하며 정력이 왕성하면 아내를 생각하는 종류와 같은 것이니 이것을 인심이라 부른다.” (『율곡전서』, 「인심도심도설」)

인심은 육체를 위해서 발동하는 감정이다. 예를 들면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싶고, 힘들면 쉬고 싶고, 이성을 보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 혹은 감정이 인심이다.

그런데 율곡의 설명에 따르면 인심과 도심이 이름으로 볼 때는, 마치 두 가지 각기 다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어떻게 발동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부른다고 보았다. 즉 마음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명칭이 구별된다.

율곡은 이렇게 설명한다.

“발동하는 것은 본래 형기(形氣)이지만 그 발동하는 것이 인의예지의 바른 것에서 곧바로 나와 형기에 가리지 않으므로 리를 위주로 삼아 이것을 도심이라 한다. (중략) 그 근원은 비록 천성에서 나왔지만, 그 발동하는 것이 이목과 사지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와 천리의 본연이 아니므로, 기를 위주로 삼아 이것을 인심이라 했다.” (『율곡전서』, 「답성호원」)

그렇다면 인심과 도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기(氣) 때문이라고 하였다. 인심이나 도심이나 모두 본성에서 발하는데, 기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이 가려지면 인심이 되고, 가려지지 않으면 도심이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나온 감정은 기를 위주로 하여 인심이라고 하고, 인의예지의 바름에서 나온 감정은 리를 위주로 하여 도심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임옥균, 127쪽)

율곡은 또 이러한 인심과 도심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인심과 도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인심과 도심이 서로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처음에는 도심이었던 것이 사사로운 뜻이 개입되어 인심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심이 멋대로 강해지게 해서 안 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인간적인 감정이 자라게 놔두어서는 안 되고 그런 감정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도덕적인 감정은 마땅히 보호하고 육성하여 차츰차츰 넓혀가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율곡은 인심과 도심을 설명할 때, 자신이 제시한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의 원리를 동원한다. 즉 기가 발하면 리가 거기에 올라탄다는 원리를 인심과 도심에 도입하여 설명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심은 순전히 천리(天理)이므로 순선(順善), 즉 아주 착한 것이다. 반면에 인심은 천리와 인욕의 양면을 겸하므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5)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앞서 율곡은 기가 발동하여 칠정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칠정 안에 있는 착한 부분을 사단이라고 지목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 가운데 포함되며 리만 가리켜 말한 것을 사단이라고 하고 리와 기를 겸해서 말한 것을 칠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본연의 성(本然之性)’과 ‘기질의 성(氣質之性)’의 관계와 같다. 율곡은 이렇게 설명한다.

“사단과 칠정은 바로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과 같다. 본연의 성은 기질을 겸하여 말할 수 없지만, 기질의 성은 오히려 본연의 성을 겸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율곡전서』, 「답성호원」)

‘본연의 성’이란 순수한 성으로 리이다. 그러므로 기질의 성이 그 안에 포함될 수는 없다. 반면에 기질의 성에는 리와 기가 함께 있다. 그래서 기질의 성에는 본연의 성도 함께 들어 있다는 것이다. 사단 역시 리이므로, 리와 기가 함께 있는 칠정을 겸할 수 없지만 그 반대로 칠정 안에는 사단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율곡은 인간의 성(性), 즉 본성을 리와 기의 합으로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본성(性)에는 본연의 성(本然之性)과 기질의 성(氣質之性)이 있는데, 이 본성은 각기 다른 두 개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일 뿐인데, 리만을 가리켜 말하느냐 아니면 리와 기를 합하여 말하느냐에 따라 그 표현상의 명칭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리만을 가리켜 말할 때는 본연의 성이라고 하며, 리와 기를 합해서 말할 때는 기질의 성이라고 하였다. (『율곡전서』, 「답성호원」) 즉 이와 기가 묘합된 것이 기질의 성이라는 것이다.

율곡이 말한 본연의 성은 앞서 장재의 천지의 성과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아울러 장재가 말한 기질의 성 역시 율곡의 기질의 성과 유사하다. 다만 설명 방식이 다를 뿐이다. 장재는 ‘열등화된 기의 현실적 양상’이라고 기질의 성을 설명한 반면에 율곡은 리와 기를 합해서 말한 것이 ‘기질의 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율곡은 이렇게 설명한다.

“성(性)은 리와 기의 합이다. 대개 리가 기 가운데 있는 연후에야 성(性)이 된다. 만약에 형질의 가운데 있지 않다면 마땅히 이것을 리라 불러야지 이것을 성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형질 가운데 나아가 리만 혼자 가리켜 말하면 본연지성이다. 본연지성은 기

를 섞어서는 안 된다.”(『율곡전서』, 「답성호원」)

앞서 주자가 성즉리(性卽理), 즉 ‘성은 즉 리이다.’라고 정의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율곡은 그러한 성 개념을 바꿔서 ‘성은 즉 리와 기의 합이다(性者, 理氣之合也)’라고 하였다. 양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율곡의 설명에 따르면 리는 기 가운데 있는 뒤에 성(性)이 된다. 즉 형질 가운데 있어야 성이지 그렇지 않다면 리라는 것이다. 성은 바로 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율곡이 말하는 성은 기질의 성, 즉 형질 가운데 있는 성이기 때문이다. 주자가 말한 성은 본연지성이다. 즉 ‘성즉리’라고 할 때의 성은 ‘본연지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연지성은 기를 섞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6) 기질의 교정

율곡은 인간이 ‘기질의 성’ 안에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은 원래 순전한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본연의 성’인 리를 스스로 발양하지 못하고 항상 ‘기질의 성’을 타고 발용하는 까닭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상 세계에 선악이 혼재함을 보고 리의 본연을 알지 못하거나 기의 영향을 받아 악으로 흐르게 됨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욕망의 조절이 가능하고 기질을 교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율곡은 질의 변화를 통하여 인간이 인간 본래의 본성, 즉 본연의 성을 회복하여 순전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종태, 472쪽)

율곡은 나아가 학문을 성실하게 하는 자라면 반드시 편벽된 기질을 고쳐서 본연의 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성학집요』, 「수기편」, 송석구, 202-203쪽 참조.)

(1) 기질이 다름으로써 교정의 방법도 서로 다르다. 기질의 성은 사람마다 그 바탕이 서로 다르지만, 착한 습관을 키우면 착하게 되고 악한 습관을 키우면 악하게 된다.

(2) 기질을 바로잡는 방법은 극기(克己)에 있다. 개인적인 사욕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극기다. 사욕을 이기면 행동이 예에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일상 행동 모두가 천리 아닌 것이 없다.

(3) 기질 교정의 공은 공부에 있다. 율곡은 『중용』 문구를 인용하여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밝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군자의 학문을 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할 바에는 반드시 완성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늘 남보다 백배의 공을 들여야 한다.”라고 한 주자의 말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배우지 않으면 몰라도 배울 바에는 능하지 못한 것을 그만두지 않고, 묻지 않으면 몰라도 물을 바에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도 생각할 바에는 터

득하지 못한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분변하지 않으면 몰라도 분변할 바에는 분명하지 않은 것을 그냥 두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몰라도 행할 바에는 독실하지 않은 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백 번이라도 하고,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천 번이라도 한다.”

율곡은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기질의 성이 사사로운 욕심에 가리지 않고 본연의 성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람의 천성은 본래는 착한 것이며 순전한 천리(天理)이지만, 사사로운 욕심에 가리기 때문에 천리가 회복되지 못한다고 보고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면 그 천성이 온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율곡전서』, 「경연일기」)